

## || 쌍용, 올해 세계 5대 시멘트 업체 진입 선언 (2000. 1. 3)

쌍용양회가 올해 1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5대 시멘트 제조업체로 발돋움한다는 경영계획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쌍용양회는 올해를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수출비중확대와 환경산업진출, 고수익 특수 시멘트개발, 선진형 조직관리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멘트 판매량을 지난해 1,150만톤에서 올해에는 1,500만톤으로 높이고 현재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수출비중도 2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특히 (주)쌍용과 연계해 기존의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외에 유럽,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0년대 전략사업으로 환경산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폐수처리시스템 등 기존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환경 청정제인 셀카시 등 신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쌍용측은 광택 콘크리트와 같은 특수 시멘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수익성을 높여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 || 주택저당채권 5천억원 발행 (2000. 1. 3)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장기 저리로 용자받을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규모가 당초 계획인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일 MBS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채권매입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MBS 발행기관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MBS 발행규모 확대안」을 올려 승인을 받기로 했다. 또 발행액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선과 상품개발 등 준비작업을 2월말까

지 마무리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MBS 제도 활성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장상황을 보가며 하반기에 수천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올해 건재수요, 8~9% 증가 (2000. 1. 10)

국토연구원은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골재 등 기초 건재의 올 수요가 건설경기 회복에 힘입어 품목별로 8~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건축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올 수요가 1억㎡를 넘어서지만 이는 업체들의 생산능력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경영난은 여전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시멘트는 지난해에 비해 8.6%(387만 1,000톤) 증가한 4,841만 6,000톤에 달할 전망이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전체의 45.1%인 2,188만톤, 하반기에 2,653만 6,0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110만 3,000톤으로 전체 수요의 43.5%, 비주거용이 15.8%(766만 4,000톤)를 각각 차지해 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 건축에 대한 수요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레미콘의 경우 올 수요는 1억 425만 7,000㎡로 작년보다 8.2%(797만 5,0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레미콘의 소비량이 많은 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활기를 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항만공사에 고내구성 콘크리트 적용 (2000. 1. 19)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구조물의 노화방지를 위해 안벽을 비롯, 방파제, 잔교슬래브 TTP 등 항

만전설공사에 시멘트와 혼화재를 첨가한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적용, 내구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사용할 시범현장을 선정, 적용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단계적으로 여타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항만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로 대부분 레미콘을 쓰고 있으나 이처럼 시멘트와 혼화재를 첨가한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수밀성이 지금보다 2배 정도 제고돼 내구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쌍용, 환경사업 본격 진출

(2000. 1. 26)

쌍용양회가 환경산업에 본격 진출한다. 쌍용양회는 올해부터 폐기물소각사업과 폐수처리 등 환경산업을 본격 추진해 올해안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양회는 우선 올해부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를 활용해 각종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폐기물 소각사업에 첫 진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은 하이셈(HYCEM) 공법을 이용해 오·폐수 처리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이셈 공법은 미생물을 고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는 다공성 세라믹 담체를 이용하여 축산 폐수를 비롯한 각종 폐수의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쌍용양회는 충남 계룡대 신도시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장 등에 이 공법을 성공적으로 시공한데 힘입어 본격적으로 공사수주에 나서 올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또 일본 요시모토평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쌍용양회는 이밖에 축산 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화학원료인 셀카시와 환경 도료 등의 기술 개발을 이미 완료해놓고 곧 제품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 건설폐기물 활용 골재 생산

(2000. 1. 26)

건설폐기물을 재생, 가공해 콘크리트·레미콘용 골재로 만드는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인선기업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골재를 다시 가공해 천연골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콘크리트·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유리 코팅방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다. 이 코팅방법은 규산과 알칼리 성분, 즉 유리성분을 함유한 수용액을 재생골재에 입히는 기법으로 골재속에 스며든 유리액이 굳으면서 골재의 강도를 높이고 표면의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준다. 따라서 이렇게 코팅된 골재는 다른 재생골재보다 강도가 훨씬 높고 흡수율도 천연골재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코팅처리된 골재의 흡수율은 3%내외로 천연골재와 거의 비슷하고 정부에서 정한 골재 1종 KS품질규격 5.37%보다 우수하다. 가격도 천연골재의 60%선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재생골재는 흡수율이 7~12%에 달하고 골재표면의 물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어 콘크리트·레미콘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인선기업은 코팅 재생골재를 레미콘, 콘크리트블록, 전신주, 물이 스며드는 콘크리트 등 다양한 콘크리트 제품과 2차활용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OC 종합투자계획 시급

(2000. 1.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지속 추진돼야 하고 SOC·물류시스템도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부처에 중복되어 있는 규제를 일원화, 한 부처가 통합관리하는 등 그동안 외형위주의 규제개혁이 내실

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SOC·물류 시스템의 정비와 관련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돼야하고 물류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체제의 확립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류비 경감을 위해 남북한 직교역체제와 남북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균형개발 본격 추진

(2000. 2. 3)

정부는 이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5대 기본방향을 경제안정기조 정착, 구조개혁 완결, 생산 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운용틀 전환과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개발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SOC 민자사업을 활성화, SOC 민자전담법인의 지급보증을 허용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장애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SOC 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를 사업당 1천억원으로 확대, 현행 300억원에 비해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오는 2004년을 목표연도로 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부산·광양항과 인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주요 도시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단지 조성을 착수키로 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 주택건설종합계획 마련

(2000. 2. 3)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각각 15만가구씩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건설을 위해 수도권 450만평등 총 85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2일부터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있으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만1,000가구, 인천 1만7,000가구, 경기 21만 2,000가구등 수도권에서 30만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20만 가구가 건설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각각 15만가구씩 건설하고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감안해 이중 19만가구를 18평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키로 했으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돕기 위해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허용하고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등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올해 계획된 50만가구의 주택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에서 1,545억원을 투입해 신규 1만가구를 포함한 3만 2,5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지원키로 했다. 16조 9,731억원을 조성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 8,604억원을 분양주택건설(1조 8,339억원), 임대주택건설(2조 7,336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3조원), 분양중도금(2조 7,348억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2,000억원),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1조 3,551억원)등에 투입키로 했다.

### 내년에도 6.1% 성장

(2000. 2. 9)

세계은행(IBRD)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6%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금융개혁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분기별 지역보고서를 내

고, 지난 '97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던 아시아 국가들이 올해에도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10.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성장률이 6%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우그룹의 막대한 부채를 흡수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을 해소하는 문제가 전년과 같은 고도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은 2001년에도 한국경제가 6.1%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년 동아시아 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약 5% 선을 유지하고 수출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나 실업 및 임금 부문에서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미셀 세베리노 아·태 지역 담당 부총재는 “동아시아 경제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경제회복의 속도를 유지하고 그 범위를 확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해 중소주택 21만 가구 공급 (2000. 2. 9)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2,900여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0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이 올해 공급할 주택은 아파트 21만 5,800가구, 연립 2,300가구 등 총 21만 8,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물량은 지난해 계획물량에 비해 15.6%가 감소한 것으로 분양아파트가 13만 7,500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6만 554가구, 재개발·재건축 1만 3,900가구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공급물량의 67%인 14만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1만 5,700가구가 분양된다. 협회 관계자는 “여년의 경우 공급계획 대비 실적비중이 약 60%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로 분양되는 중소기업 아파트는 12만~13만 가

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주택경기 침체와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한 미분양 누적과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수익성 악화 우려감과 함께 주택사업에 대한 의욕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단양군, 시멘트 간이 물류기지 조성 (2000. 2. 13)

충북 단양군은 이 지역을 시멘트 생산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까지 매포읍 평동 매포리 일대에 대규모 시멘트 수송간이 물류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1억원을 들여 이 일대 8만5백여㎡에 부지를 조성 한 뒤 내년부터 2002년까지 16억원을 들여 정비공장,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창고 등을 완공,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 물류기지를 조성키로 했다”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사무소와 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쌍용, 옹평리조트 분사후 합작법인으로 운영 (2000. 2. 22)

쌍용양회는 7일 분사한 (주)옹평리조트를 22일 해외의 리조트 전문투자회사인 Pan Pacific Resort Investment II Ltd.(PPRI II사)와 50:50으로 합작 운영하기로 했다. 쌍용측은 그동안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회사인 Arthur D. Littlehk Bain & Company 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옹평리조트를 독립적인 레저 서비스 전문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옹평리조트와 함께 해외의 유수의 스키 리조트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의 사전 단계로 우선 PPRI II사와 합작을 추진하게 됐다. 쌍용양회는 이번 리조트사업 분리와 외자유치로 재무

구조를 크게 개선하게 되며, 향후 시멘트와 환경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주력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용평리조트는 업종전문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종합리조트개발 운영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새천년 첫 달 감잡은 건설경기

(2000. 2. 29)

올들어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지표가 호전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공공공사 건설수주액이 지난달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민간부문 또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국내건설수주액은 총 3조4,03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총 9,180억원의 수주고를 올려 지난해보다 10.7%증가했으며 특히 경기회복세를 뚜렷히 반영한 민간부문의 총수주실적은 2조 4,770억원으로 주택분야가 231.5%인 것을 비롯해 사무실 317.7%, 공장과 창고는 602.6%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197.6%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230만 5,000㎡로 62%, 상업용 99만㎡로 80%, 공업용 117만 5,000㎡로 408.7% 등 모든 용도의 허가면적이 대폭 늘어 지난해에 비해 89.6%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액은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2,83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줄었다.

## 저발열시멘트 균열발생 억제

(2000. 3. 6)

콘크리트구조물에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수화열에 의한 균열발생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서대학교 김상철 교수는 콘크리트 학회지에 발표한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시멘트 종류별 수화발열 특성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연구단계에서 실용화단계로 접어들면서 다량의 시멘트 사용에 따른 수화열에 의한 구조물의 온도균열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프리쿨링 유도줄눈 선정 등 기존의 방법에 다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 골재등을 적절하게 선정한다면 효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댐등에 대형 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단순한 프리쿨링이나 파이프쿨링 등을 적용, 콘크리트작업 전후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수는 해양구조물에 많이 사용되는 4종류의 시멘트로 모의시험체를 제작, 온도 및 온도응력을 재량별로 측정해 결과 수화열 발생은 슬래그 함유량 65% 시멘트가 가장 높고 이어 45%, 5종 시멘트, 저발열 시멘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신공항 철도」민자유치 건설

(2000. 3. 7)

정부는 6일 기획예산처 주재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 최소 5개 이상의 대형 SOC사업의 민간투자를 가시화하기 위해 도로와 항만, 철도, 교량 등 분야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오는 3월까지 선정,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들 사업은 인천 신공항철도(총 추정 사업비 3조 2,400억원, 연장 61.5km)를 비롯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마산항 1단계, 부산 거가대교등이다. 예산처는 이들 민자사업의 사업착수를 상반기중 가시화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사업참여를 추진하는 민간 기업과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또 민간 투자지원센터내에 설치된 사업별 전담반이 프로젝트 인큐베이터역할을 수행, 범정부차원에서 외자유치에 앞장서는 등 일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공공부문이 진행중

인 SOC사업의 참여를 원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가능케끔 올해 내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민간투자사업에도 행정절차단축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토록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기획예산처 차관을 단장으로 SOC민간투자지원단을 구성, 프로젝트별 애로타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 주요 건자재 가격 오름세

(2000. 3. 9)

건자재 유통시장에 따르면 3월 들어 철근을 비롯한 시멘트·콘크리트 등 주요 건자재 품목 가격이 최고 8% 가까이 오르는 등 건자재 시세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근은 아파트 재건축 붐을 타고 지난 1월 톤당 26만원에서 이번주 들면서 28만원으로 8%가량 올랐고 동관은 kg당 8일 현재 3,080원으로 동절기인 연초보다 2.7% 인상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콘크리트 파일도 월초 개당 14만 3,500원이었으나 8일 현재 15만 5,500원으로 8.4%이상 뛰었으며 강관 역시 kg당 1,131원으로 연초 대비 3.7%이상 상승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직접적 원인은 강남과 잠실 지역 재건축에 따른 수요급증 때문"이라며 "이같은 추세로 보아 가격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2만 4,000여가구가 재건축될 예정이어서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시멘트와 철근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다. 또 최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 원유값 상승도 건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 소형 주택건설 크게 감소

(2000. 3. 13)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민

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이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민간업체들이 건설하는 소형주택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전체적인 국민주거 안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타지역보다 주택건설이 활발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 '98년 분양된 주택(26,781가구)가운데 30평이하 소형이 18,042가구로 67.3%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22,432가구 가운데 59.5%인 13,351가구로 감소했다. 반면, 50~60평형은 '96년 이전 4%에서 해마다 3%, 10.5%로 늘어 지난해에는 20.1%로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소형주택이 급감하는 요인으로 시장의 수요변화와 공급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는데 우선 수요측면에서 소형평형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미분양으로 이어져 업체들이 건설자재를 포기하고 있으며 18평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 건축비에 따라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또한 원인의 하나다.

### || 동양, 내해수성(耐海水性) 시멘트 국산화

(2000. 3. 14)

동양시멘트가 해양구조물의 연결부위에 시공하는 특수시멘트를 국산화했다. 이 제품은 해양구조물의 연결부위에 시공해 구조물을 서로 접합시키는 데 사용되는 내해수성(耐海水性) 그라우트몰탈이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철판이나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빈틈 없이 채워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다. 동양시멘트는 네덜란드 베바오일사의 주문으로 석유시추선을 제작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생산 의뢰를 받아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그라우트몰탈은 석유시추선의 부대설비인 석유와 가스 저장탱크

하부구조에 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시추선을 제작할 때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특히 해양구조물의 부식 원인이 되는 염소이온과 황산염 등 각종 화학성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침식을 방지한다. 동양은 이 시멘트를 해양구조물을 시공하는 건설사의 주문에 맞춰 생산할 계획이다.

### 쌍용, 포털사이트 구축

(2000. 3. 20)

쌍용그룹은 인터넷상에서 그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포털사이트(가칭 '쌍용 닷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포털사이트 구축계획은 현대('현대 닷컴')에 이어 두 번째로 다른 그룹으로의 확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용그룹은 21일 시멘트와 무역, 금융, 중공업, 건설 등 그룹의 기존 주력사업에 e-비즈니스를 도입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조화시킨 사이버 정보통신 그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쌍용은 이를 위해 계열사의 모든 사업분야와의 접속이 가능한 그룹 포털사이트 '쌍용 닷컴'을 구축,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거래와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쌍용은 올해 상반기 중 500억원을 투자해 인터넷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첨단 정보통신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은 이 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 기존 고객을 포함해 1,000만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 부터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e-비즈니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동양, 벤처 및 인터넷 지주회사로 거듭난다

(2000. 3. 30)

동양시멘트가 인터넷과 벤처기업 투자 등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벤처지주회사로 변신한다. 우

선 동양은 국내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투자사업본부를 창설해 투자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경영분야를 지원하는 업무도 병행하며 이 조직은 사실상 벤처캐피탈의 성격을 띠고 운영된다. 현재현 회장은 3월 29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특강에서 "산업의 기본틀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다"며 "기존의 사명으로는 시멘트 사업외에 무역, 건설, 벤처투자 등의 사업부문을 표현할 수 없어 사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측은 중장기적으로 시멘트등 건축 자재부문의 매출비중을 40%이하로 유지하고 동양글로벌 등 상사의 네트워크와 조직을 활용해 벤처와 인터넷 지주회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고 또 e-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외국의 인터넷전문회사와의 제휴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지역에서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현지 진출을 통해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북한지역 건설특수 기대

(2000. 4. 11)

4월 10일 발표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핵심내용이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SOC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돼 건설업계가 북한 지역 SOC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정치적인 이슈보다 경제적인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경험은 주로 북한이 취약점을 안고 있는 SOC와 위탁가공 분야가 될 것이며 SOC분야는 대형건설업체, 위탁가공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SOC투자외에도 건설업의 후방산업인 시멘트, 철근등 건축재 업체들의 동반진출도 기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민간차원의 교류는 있어 왔지만 특정기업만을 대상으로 했고 위험부담도 커 적극적인 진출을 유보해 왔으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는데다 위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熊谷組사, 산(酸)에 강한 방식몰탈 개발**  
(2000. 4. 11)

일본 쿠마가이구미(熊谷組)사는 항균제를 넣어 유산생성량을 줄이는 동시에 무기계산화제를 다량 혼합해 방식성을 향상시킨 몰탈을 개발, 내산성이 필요한 하수도 보수공사의 품질향상, 공기절감, 공기단축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멘트 경화체안에 수산화칼슘 생성량을 줄이는 무기계산화제를 혼합, 유산칼슘과 에트린자이트를 감소시켜 내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진흙농축조와 질소화탱크등 진흙처리시설, 부식진행이 빠른 물처리시설에는 수지계 방식피복의 기초 작업으로 사용돼 방식피복의 내용연수가 지나도 손상이 최소한으로 억제된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공법을 적용한 결과 시공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표층부의 열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熊谷組사는 하수도시설의 기술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보수기술을 확립,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성이 전망되는 하수도시설의 리뉴얼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방침이다.

**페콘크리트 건축자재 재활용**  
(2000. 4. 20)

건축물 해체등에서 발생하는 페콘크리트를 재활용, 건축자재로 만드는 기술이 경북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따라 각종 건축현장에서 연간 수 천만톤 발생하는 페콘크리트의 재활용이 가능, 처리 문제로 골치를 썩이던 건축업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김화중교수가 개발한 폴리머 콘크리트는 강도가 화강석과 비슷할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각종 건축 바닥재나 마감재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고 도로경계석으로 쓰이는 값비싼 화강석을 대체할 수 있는 등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교수는 “현재 값이 기존 제품보다 7배가 비싼 것이 흠이지만 대량 생산할 경우 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다 페콘크리트를 수거해 사용할 경우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 올 경제전망 발표**  
(2000. 4. 2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분기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8.6%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4%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전망치 7.8%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며 정부 경제운용 목표치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도 정부가 내놓은 3% 이내 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KDI는 그러나 추가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지속돼 경기과열이 나타나면 안정기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따라서 보수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기과열을 예상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금융구조조정을 매듭짓고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하며 재벌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개선작업을 정착시키는 등 구조개혁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설비투자 급증, IMF 이전 수준 회복**  
(2000. 5. 2)

기업설비투자가 처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설비투자가 소비수준을 앞질렀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놓고 그동안 소비가 이끌었던 경기회복이 투자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징후로 해석하고 있다. 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설비투



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난 97년 10월을 100으로 했을 때 111.6을 기록했다. 그동안 설비투자는 지난해 1/4분기까지만 해도 IMF 당시 대비 60%대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2/4분기 87.1을 기록한 후 급속한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절대수준면에서는 아직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설비투자는 또한 지난 1/4분기에 처음으로 소비수준을 앞질렀다. 소비수준은 106.1로 투자보다 5.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가 투자를 밑돈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격차가 가장 심할 때는 26.3포인트(98년 3/4분기)나 벌어졌었다.

## 동양, 호텔업 본격진출

(2000. 5. 4)

동양그룹이 호텔업에 본격 진출한다. 동양의 모기업인 동양시멘트는 3일 호텔·사무실 복합빌딩 건설을 위해 유럽 최대 호텔체인인 켈핀스키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지분을 50대 50의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양은 소유중인 마포부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합작회사 설립후 합작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유럽계 최대 호텔체인인 켈핀스키사는 유럽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최소 1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 지분투자와 동시에 호텔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동양은 꾸준히 켈핀스키 컨소시엄과 기본 조건을 포함한 의향서를 교환할 예정이며 시공은 동양시멘트 건설부문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항만개발 기업참여 필요

(2000. 5. 15)

남북교류확대를 위해 나진항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항만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3일 남북교류확대를 위한 북한항만개발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

다. 이 보고서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량화물수송 등에 한계가 있는 항공 및 육로수송보다는 항만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민간기업의 개발참여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나진항 다목적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중기적으로 남포항과 송림항, 중장기적으로는 청진항과 선봉·홍남·원산항 등의 개발사업참여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공단의 경우 해외차관도입으로, 민간기업은 자체자금 활용을 통해 충당하면 되고 인력, 장비 및 원자재 수급방안으로는 석재와 콘크리트용골재 및 생산인력은 북한자재와 인력을 활용하고 기타인력이나 자재·장비는 국내에서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도, 시멘트산업 급성장

(2000. 5. 15)

인도의 시멘트산업이 지난 '9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98년 소비량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세계 3위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시멘트 기업체는 자국자본의 4개 그룹이 생산량의 50%를 점하고 있으며 구미(歐美)자본의 진출은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 시멘트협회에 의하면 인도의 국내 시멘트 소비는 지난 '90년 이후 연 7% 넘게 증가하여 '98년에 7,980만톤이 되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금융자유화등에 의해 경제가 고성장하여 시멘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증강이 진행되어 생산량도 '90년의 4,700만톤에서 '98년에는 8,300만톤으로 급증, 일본, 미국을 제외한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가 되었다. 국내소비에 350만톤의 수출도 하고 있으며 국내소비의 70%를 주택건축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이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로 정비계획등에 의해 공공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

여 2000년에는 9,660만톤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 1인당 소비량은 100kg을 넘지 않아(일본 560kg, 중국 400kg) 잠재성장력은 아직도 큰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시멘트 시설을 살펴보면 '98년 현재 103개 공장에 키른은 176기로 생산능력은 연 1억 1,000만톤(시멘트 기준)이며 176기의 키른중 건식 키른은 118기로 SP, NSP키른이 전능력의 91%를 점하고 있다. 생산능력은 '90년의 5,900만톤에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급증해왔지만 2000년에는 1억 2,58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의 시멘트 업체들은 44개사가 있으며 이중 4대 그룹이 46개 공장에서 51%의 생산능력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0개사는 1~2개 공장을 보유하여 각각의 지역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최대 생산회사인 Bila 그룹은 섬유, 화학비료, 자동차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재벌로 24개의 시멘트공장에서 연산 2,53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멘트 10개사가 통합하여 만든 Acc사는 12개 공장 1,190만톤, 3위인 L&T사는 건설기계업체로 5개 공장 1,070만톤, 4위인 JK 그룹은 타이어, 섬유, 제지업을 하는 재벌로 5개 공장 710만톤의 생산능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4개사는 모두 경영기반이 견고하고 생산능력 증대도 자기자본을 주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구미자본의 진출은 두드러지지 않는데 다만 '98년에 라파즈(Lafarge, 프랑스)사가 유일한 외국자본으로서 인도 최대재벌 TATA 사로부터 시멘트 부문(2개공장 170만톤)을 인수하여 고로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투자선에서 고로시멘트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동사의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 북한, 상원시멘트도 구조조정

(2000. 5. 20)

북한이 지난해 말~올해 초 공장·기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대상에서 제외된 것

으로 알려졌던 평양 상원군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최근 상원시멘트공장으로 격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외화별이 전담부서인 39호실 직속으로 시설이나 규모,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기업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진 북한내 손꼽히는 특급기업소로 알려져왔다. 19일 입수된 북한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호(5월 7일자)에서 오익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상원시멘트공장을 참관했다고 보도,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상원시멘트공장으로 축소, 개편됐음을 확인했다. 노동신문은 오 부위원장이 원료분쇄장과 원료배합장 등 여러 생산공정을 둘러 보면서 공장이 북한 굴지의 자동화된 시멘트생산기지로 훌륭하게 건설된데 대해 큰 감동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연말~올해 초 연합기업소 15개 정도, 종합공장·종합기업소 10여개 등 모두 40여개 단위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최근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일반공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합기업소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함북 김책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평북 용천군의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두 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쌍용, 중국에 크링카 첫 수출

(2000. 5. 29)

(주)쌍용이 국내 무역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안후이 콩치 시멘트社로부터 주문받은 크링카 20만톤 가운데 1차분을 최근 선적,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올연말까지 20만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올초 체결했다. 이와 함께 쌍용은 중국의 강소성, 산둥성 및 광둥성 당국 및 현지업체와 크링카 추가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쌍용은 이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멘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중 150만톤, 연말까지는 300만톤으로 잡은 수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의 260만톤보다 15%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연간 시멘트 생산 및 소비량이 5억톤을 넘는 세계 최대시장인 만큼 중국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는 등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 내년 SOC에 17.6조원 투입추진 (2000. 6. 9)

기획예산처가 8일 발표한 '2001년 정부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52개 부처와 산하청의 내년 재정요구액은 120조3,257억원(재정특별회계포함)으로 올해 예산보다 29.9%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처는 그러나 내년 재정규모를 100조원 내외로 올해보다 6%수준 늘리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대형 국책사업 등 건설사업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요구액은 사회간접자본이 17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5.2%(3조5천억원) 늘려 잡았고 교육투자 24조2천억원, 농어촌사업 11조, 사회복지 9조4천억원, 과학기술·정보화 6조9천억원, 중소기업·수출 5조1천억원, 문화관광 1조4천억원 등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오는 2007년 완공목표로 시행예정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을 비롯, 인천국제공항 제2연륙교, 8차 기간국도건설, 서울지하철 9호선, 호남선 전철화 등이다. 또 통일부는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구축을 위해 5천억원의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추가출연을 요청했고 산업자원부는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 섬유, 광주 광통신 등 지방의 전략특화사업의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 수도권 준농림지 용적률 80%로 (2000. 6. 12)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80%로 각각 일원화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

의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중 각각 상한선을 채택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준농림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용인지역의 난개발 현상이 광주·화성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국토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준농림지 건폐율은 20~40%, 용적률을 60~80%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선인 40%, 80%를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 건폐율, 용적률강화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반발과 주택 50만호 공급차질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SOC 인프라펀드 3천억원 조성 (2000. 6. 19)

기획예산처는 17일 캐나다 최대의 연기금관리회사인 퀘백 투자신탁기금(CDPQ)이 1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역외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프라펀드는 산업은행 1,000억원 등 국내 5개 금융기관이 출자기로 한 2,200억원 규모의 국내펀드와 함께 모두 3,300억원 규모로 출범, SOC민자사업의 재원조달 창구의 기반을 조성케 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오는 9월 중순까지 국내·역외펀드를 운영할 자산운용회사를 설립, 사업성이 높은 SOC민간 투자사업의 발굴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달러 규모를 추가로 조성, 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역외펀드출자의 확정으로 인프라펀드의 형태가 완성됨에 따라 향후 국제수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등 국내 SOC 사업에 대한 금융기법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SOC 전담법인인 인프라펀드의 투자를 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채원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행정부,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폐지 (2000. 6. 23)

행정자치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3년 도입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기전 3년의 유효기간을 감안할 경우 지난 98년 1월 1일 이후에 매입한 토지는 모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구입한지 3년이 지난 중고승용차에 대해 1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12년 이후부터는 신차의 절반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과 농협 등이 신용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 주택건설경기 호전 기대 (2000. 6. 23)

주택건설업체들은 3·4분기에도 주택건설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용보증기금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주택건설업체 14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3·4분기 경기예측BSI는 153으로

나타나 경기가 큰 폭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주증가가 52.1%로 가장 많았고 자금사정호전(28.1%) 매출채권회수조건 호전(11.5%) 생산성향상(5.2%) 등의 순으로 꼽았다. 신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3·4분기중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면적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그린벨트해제와 주택저당채권 발행의 활성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 재경부, 건설투자 하반기 7% 증가 전망 (2000. 6. 24)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중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상반기중 11%에서 하반기중 6%수준을 유지해 연간 8%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건축 재정과 신축금융 등 현행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을 적극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건설투자가 상반기중 6% 감소에서 하반기중 7% 증가로 돌아서 연간 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연간 2.5%대로, 실업률은 4%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상수지는 연간 100~12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긴축의 경우 재경부는 재정적자규모를 당초 13조원에 비해 1~3조원 감축,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2.0~2.5% 수준으로 운용키로 했다. 국채발행 규모는 세입증가에 따라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며 통화정책과 관련, 저금리 기조를 견지하고 장기금리의 안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